



슈발리에, 그의 시대에..

슈발리에 신부님의 삶 : 1859년 어느 날 오후, 줄 슈발리에신부와 몇몇 동료들이 봄 더위를 피하고 있던 이수당의 석회나무 그늘에서, 그는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모당의 이름을 어떻게 할까요?" 줄 신부님은 그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새 이름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이 있었지만 줄은 "예수성심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성모님께 수도회 설립에 도움을 청했고, 성모님의 호의에 감사하며, 성모님께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 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년 후인 1861년, 그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성당의 스테인드글라스 창문을 만들었고, 그 창문 안에 예수성심의 어머니의 모습이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슈발리에 신부가 『예수성심의 메신저』에 기고한 기사와 교회 건축을 위한 이미지 캠페인의 성공으로, 성모 마리아에 대한 신심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1864년 협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슈발리에 신부님의 말씀 : 그는 성모상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 그것은 손과 눈이 아래를 향하며, 그녀의 앞에 있는 아기 예수를 가리키며, 보통의 크기로, 원죄 없으신 성모님을 표현할 것입니다. 아이의 가슴에는 작은 심장이 광선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손가락으로 이것을 가리켜 신자들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성심 성모, 얀 G. 보벤마르스, 석사, 15쪽).

예수성심의 어머니 : "이 단어는 마리아가 신성한 모성의 결과로서 예수님의 심장에 대한 큰 힘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성심으로 가기 위해 이것을 지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심의 성모』, 얀 지 보벤마르스, 29쪽).

"성모님께 자주 말씀드리자: 예수성심의 어머니, 저희를 위해 빌으소서." (M1 718).





오늘날을 위한 슈발리에 ...

예수성심의 어머니에 대한 사랑은, 줄 슈발리에신부님이 그분을 수도회의 주보성인으로 모셨던 것과 똑같은 열정으로, 우리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요한 바오로 2세가 회칙 「구세주 어머니」(1987년 3월, RM)에서 성모님에 대해 몇 가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성모님은 모든 대륙으로 퍼져나갔고 여전히 매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슈발리에신부님이 성모님이 "희망을 잃은 이들의 희망"이라고 덧붙이자, 요한 바오로 2세는 "모든 이들에게 확실한 희망의 표징으로 남아 있다"(RM 11)고 답하며 그것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달의 기도

그러나 이 공경하올 성심은 그러한 위대한 일을 성취하기 위해 도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도구는 성모님 바로 당신이십니다!

방금 우리 눈들 앞에서 펼쳐진 신성한 계획에서 당신이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이 생명과, 빛과 축복의 샘을 가져오셨습니다; 당신의 축복된 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풍성함들이 오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드님의 성심은 모든 것이 수렴되는 중심이고, 모든 세계의 만남의 장소이며, 모든 존재들의 영광이며, 모든 선택받은 이들의 안식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변모되고 귀하게 되는 이 빛나는 도가니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SCJ 93).

